

智異山 華嚴寺伽藍의 造營思想에 關한 研究
-풍수사상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Organizing Principle of Hwaeomsa Temple
in Chiri Mountain

- Focused on the Theory of Feng-Shui(Configuration of the Ground) -

이 동 영* 최 효 승**
Lee, Dongyoung Choi, Hyoseung

Abstract

Kurye-gun, which Hwaeomsa temple is located, has huge scale'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mountains, rivers and open fields. This is really blessing area because of Som-jin river at the bottom of Ghiri mountain and open fields, which this situation is very difficult.

The location of Hwaeomsa temple is an end of The Baek-Doo Mountains and very important spot(where influences to its geometric converge) of the theory of feng-shui.

On exposure logic of the Korean traditional theory of feng-shui, the organization in Ga-Ram of Hwaeomsa temple is inconsistent with representative theory and analyzing system. So, this is one of successful examples with the theory of feng-shui because exhalation from the earth and water was organized well with accuracy.

키워드 : 풍수사상, 지역적 특성, 백두대간, 풍수사상의 형

Keywords : the theory of feng-shui,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Baek-Doo Mountains, spot(where influences to its geometric converge)

1. 序 論

우리 나라에서 집이나 建物을 세울 때 ‘터를 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집이나 建物이 서는 자리를 포함하여 주변의 環境을 고려한다는 말로 이러한 터가 평지일 때 뿐만이 아니고 建物の 立地가 그리 여유롭지 않은 山地나 丘陵地일 때 도 마찬가지이다. 建物位置, 주변 山勢, 水 位置, 向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해서 建物을 세우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環境의 고려나 주변과 建物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만

의 독자적인 風水思想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有數의 사찰들이 立地한 곳을 風水地理的 觀點에서 본다면 명당자리에 해당되는 곳을 알 수 있다.

全南 求禮의 智異山에 위치한 華嚴寺는 華嚴思想을 주 思想的 바탕으로 民間信仰 등의 諸思想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大伽藍이다. 이 寺刹에서도 風水思想의 導入을 찾아 볼 수 있다. 智異山 華嚴寺의 位置는 白頭山에서 시작된 白頭大幹의 끝에 해당하는 곳으로 종석대와 老姑壇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에 둘러 쌓인 勝地에 伽藍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研究에서는 風水思想의 基本的인 理論的 체계들을 알아보고 우리 나라 국토의 穴

* 정회원, 청주대학교 건축공학부 박사과정

** 정회원, 청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에 해당하는 중요한 位置인 智異山과 그 안에 자리잡은 華嚴寺의 地理的 環境 및 自然的 環境을 分析하여 華嚴寺에 나타난 風水思想的 背景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風水地理思想의 定義와 理論체계

풍수지리라 함은 토지에 대하여 신비하고 영묘한 어떤 실재를 인정하고 이것에 형용 이상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그 토지 이용에 연관된 현실세계의 길흉화복을 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韓國의 民間信仰을 이루는 큰 흐름의 하나인 觀念은 陰陽說과 五行說의 합인 陰陽五行說에서 元용한 生氣說과 이 生氣의 感應說에 근거를 둔다. 풍수지리는 생기를 입는 대상에 따라 음기풍수와 양기풍수로 나뉘며 양기는 다시 그 규모에 따라 개인양기, 도읍양기로 나눌 수 있다.

풍수라는 말 자체가 ‘藏風得水’¹⁾에서 유래한 것으로 藏風과 得水가 風水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이를 이루는 山·水·方·位가 그 구성요소가 된다. 藏風은 山에 의하며 이를 龍²⁾이라 한다. 이 龍에 의해 생기는 四神砂에 의해 局穴에 모이게 된다. 四神은 穴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서, 主山의 玄武, 前方의 山이나 水인 朱雀, 左側山인 靑龍, 右側山인 白虎이다. 四神중에서 玄武와 朱雀은 風水의 成局으로 볼 때, 陰과 陽의 결합관계를 뜻하며 靑龍과 白虎는 穴을 감싸고 호위해야 한다. 得水是 水朱雀에 의

하며 穴에 가까운 것을 內水, 먼 것을 外水라 한다. 內水는 겹으로 된 靑龍과 白虎의 사이에서 흘러나와 전방에서 合水한 후 밖으로 나가 外水에 합쳐진다.

風水의 坐向은 坐와 向의 二法으로 이루어진다. 坐는 陽基나 陰宅위치를 말하며 向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이 坐向은 五行, 八卦, 十干, 十二支를 결합한 것으로 陰陽의 中和의 五行의 相生으로 判別된다.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보면 한없이 신기한데 기후나 풍토의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따르는 자세가 바로 변영이며 이것에의 역행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순리에 따라 행동하여 조화를 이루며 지혜를 개발해 내는 것이 풍수지리의 근본이다. 풍수의 근본 목적은 천지간 자연과 함께 영화를 꾀함에 있으니 땅을 인간의 생모로 간주하여 어머니로써의 능력을 찾아내는 데 있다. 그 요체는 바람과 물 땅에 대한 논리적인 이론을 추구하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환경 과학인 것이다.³⁾

우리나라에서의 풍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의 탈해왕에 관한 대목에 왕이 등극하기 전 吐舍山에 올라 마치 형태가 초승달인 三日月 形局의 택지를 발견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 택지를 빼앗아 후에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또 백제가 반월형의 부여를 도성으로 삼은 것도, 고구려가 평양을 도읍으로 삼은 것도 모두 風水思想에 의한 것이다. 삼국시대에 도입된 풍수 사상은 신라 말기부터 활발하여져 고려시대에 전성을 이루어 조정과 민간에 널리 보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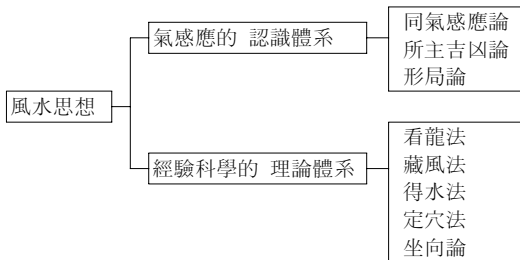
전통 풍수서에 있어서 風水思想의 논리구조는 대체로 龍, 穴, 砂, 水論의 4대 구분을 따르나, 최창조가 풍수의 여러 유파의 이론들을 종합하고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분한 이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1) 風水에서는 山과 水가 균형을 이루면 陰陽의 和를 이룰수 있고 陰陽이 서로 모이면 生氣를 穽게 하기 때문에 山水가 서로 모이는 곳을 吉地로 한다. 따라서 藏風과 得水가 風水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風水란 단어의 語源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2) 풍수에서는 산을 용이라 하고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이것의 변형을 아홉가지로 보아 오성과 구성으로 나눈다. 이때의 성자는 지상의 물체는 천상의 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갖게 된다고 하여 천상에 있는 그 근원에 따라 성이라고 불린다.

3) 임학섭. 寺刹風水. 밀알사. 1995. p.268

풍수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땅에 대한 이치를 연구한 경험과학적 논리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기가 어떻게 人事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밝힌 氣感應의 인식체계 부분이다. 이러한 구분을 표로 요약하면 <표 1>과 같다.⁴⁾

표 1. 風水思想의 논리체계



3. 華嚴寺와 風水地理思想

3.1 伽藍과 풍수지리사상

우리 나라 伽藍의 배경으로는 크게 지리적 조건인 자연적 요인과 佛教신앙을 포함하여 民間信仰과 풍수지리사상 등과 관련된 사상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적 요인은 구체적으로 해당 伽藍의 지리적 조건인 지형과 지세, 그리고 기후 등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平地伽藍과는 달리 山地伽藍은 입지 형태를 결정할 경우 산지의 지형·지세 등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가 결정되었다. 즉, 지형의 차이와 지세, 수세 등에 의하여 입지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자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伽藍의 자연적 요인은 사상적 요인에서 풍수지리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伽藍의 입지는 풍수지리사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아무리 훌륭한 명당도 그 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며, 이 명당에 인간들

이 인공의 환경을 만들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 완결시키려는 것이 비보풍수이다. 비보풍수의 활용은 풍수형국이 지향하는 형국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그 환경에서 살기에 적합한 토지이용의 대책마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풍수지리사상이 일반화된 것은 신라말 도선의 출현이후이며, 고려 태조이후 도참설과 연관되어 널리 民間信仰으로 성행하였다.

<표 2> 기존 입지선정요인 분류⁵⁾

내 용	
자연적 요인	지리적 조건 - 지세, 지형, 방위 기후적 조건 - 일조, 풍우 (자연요건)
사상적 요인	불교신앙 - 佛教의 자연관 民間信仰 - 민간의 신성관 (風水思想)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도교의 仙家로서 道說, 義湘을 風水圖讖說의 창시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풍수라 하는 것이 도교적 사회분위기와 밀접하다는 사실과 도선 이전, 義湘 당시의 풍수적 개념이라는 것이 신라의 기존 民間信仰을 토대로 山과 江 또는 대지를 대하는 의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語意上, 圖讖의 定意를 그 內容圖式的 眞僞와 現出의 神秘 여부를 막론하고 장래의 사상, 특히 인간 생활의 吉凶禍福에 대한 예언 혹은 징조를 지칭하는 용어라 할 때 기존의 諸 신앙요소를 기반으로 발생한 地리개념인 풍수개념을 圖讖風水라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圖讖은 風水說 이전에 한반도에 전래되었고 이것이 지리선택의 개념이었던 풍수와 결합되어 伽藍의 입지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자장이 당에서 유학을 마치고 신라에 돌아왔을 때, 도참풍수와 유사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장이 신라의 산천이 가진 나쁜 지세의 결함을 비보하는

4) 풍수사상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이희덕의 「풍수지리」 박영사.pp53~125 참조.

5) 진경돈, 부석사의 입지선정배경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1988

방법으로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물론 이것은 자장의 立塔護國信仰의 발로로 볼 수 있지만 지세의 결합에 따라 佛法을 강화해야 한다는 풍수의 비보사탑사상과 같은 맥락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장의 경우는 간접적이라고는 하나 풍수 개념이 伽藍입지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며, 앞서 살펴본 元曉·義湘의 행적에서 풍수개념이 창건 승려의 思想體系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韓國 고유의 지리선택 개념으로서 風水思想과 유사한 개념이 伽藍입지에 작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伽藍의 건축물 자체에서 풍수의 적용이 보이고 있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伽藍건축의 평면형태는 一 형이 대부분이며, 이 형태 주위를 회랑으로 둘러싸는 방법으로 마당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이후에서 보이는 건물평면의 유형은 一, ㄱ, ㄷ, ㄹ 형의 다양한 건축평면구성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건축의 평면형태 변화가 마당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건축공간에서 마당은 풍수의 명당에 해당함으로 마당 주위의 동서남북 건물들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韓國 전통건축 배치의 일반적인 원칙은 “평면형태를 변화시켜 마당을 완성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韓國의 풍수개념은 그 주체가 자연이어서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화에 적응력을 갖기 위해서 상대적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韓國 전통건축공간의 중심공간 구성은 혈에 중요도 혹은 위계가 가장 높은 건물을 입지시키고, 그 전면에 명당 즉 앞마당이 입지한다. 이 마당 사방에 사신사를 형성하기 위한 건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風水思想을 수용한 韓國 전통공간의 형성의 원리이다.

특히, 가람에서의 입지조건으로 풍수에서는 생기가 모인 곳, 즉 혈을 이룬곳에 가람을 세워야 한다고 하며 또한 혈의 대소에 따라 그곳에

세워지는 가람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가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大雄殿은 바로 혈자리에 앉히었고 大雄殿의 방향은 내용의 방향에 의해 정해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大雄殿은 주산을 등지게 되고 배치의 축선은 지형에 따라 대체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의 산맥은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남쪽을 향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그 혈은 주로 남향하여 있는 것이 많아 대부분의 가람이 남향으로 앉을 수 있었고 산맥의 방향에 따라 가람의 축이 동 혹은 서의 방향으로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기를 중시하였고 따라서 생기가 있는 곳은 으레 그곳을 감싸주는 청룡과 백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가람은 산의 품안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 청룡과 백호가 크고 아름다울수록 생기가 왕성하다 하여 가람의 터 역시 이들 국면에 따라 그 길한 정도를 판별하게 되었다.

3.2 華嚴寺와 풍수지리사상

自然環境的 要因은 地勢, 地形, 水界 뿐만 아니라, 風水地理의 要因도 그 근본 思想이 自然과의 합일이므로 넓은 意味로는 自然環境的 要因에 포함된다.

우리 나라의 척추인 白頭大幹은 白頭山에서 시작되어 雪嶽山, 太白山, 小白山까지는 큰 줄기의 山脈이 끊어지지 않고 南北으로 길게 뻗어 있다. 여기서 지맥은 東海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고 본 줄기는 西南쪽으로 그 方向을 바꾸어 속리산, 황악산, 덕유산, 백운산을 거쳐 老姑壇에 이르러 그 끝을 맺게 되며 그 지맥이 동으로 뻗어 金海에 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風水地理上으로 살펴보면 老姑壇을 祖山으로 하고 白頭山을 祖宗山으로 하는 華嚴寺의 位置는 우리나라 全體의 穴에 해당하는 곳이 된다.

華嚴寺는 老姑壇에서 시작되는 華嚴寺 溪谷의 오른쪽 緩傾斜面에 位置하고 있으며, 華嚴寺 溪谷은 全體의 軸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溪谷의 周邊에 位置하고 있는 華嚴寺 埜地상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溪谷을 따라 선형으로 길게 配置되어 그 全體의인 配置의 軸이 溪谷의 軸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山地의 傾斜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進入 空間이나 靈山殿의 石築⁶⁾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흰 傾斜路의 形態로, 혹은 적 절한 높이의 石築에 의해서 자연에 순응하는 形態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溪谷이 넓어서, 附屬되는 작은 溪谷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까닭에 院이나 庵子의 立地에 필수적인 要素인 水源의 확보가 容易하므로 곳곳에 많은 院이나 庵子의 立地를 可能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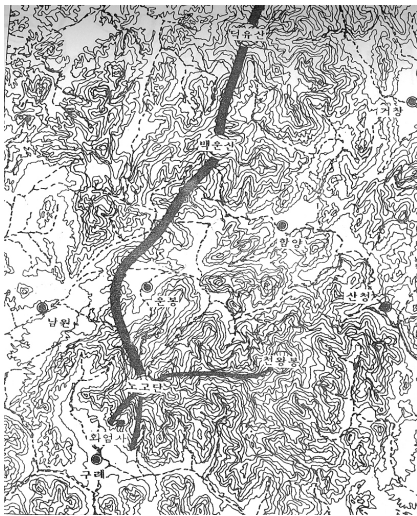


그림 1. 백두대간과 華嚴寺의 위치도

華嚴寺의 重建主로 丈六殿을 創建한 義湘大師는 佛敎의 思想뿐만 아니라 風水思想에도 깊

6) 靈山殿의 石築의 높이는 覺皇殿의 石築과 中庭의 中間정도이다. 이는 覺皇殿에서 滿月堂으로 흘러내리는 地形이 급한 傾斜面을 이루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覺皇殿의 바로 옆에 位置한 靈山殿을 覺皇殿 石築보다 2m 정도 낮게 位置시키고 있다.

은 關聯을 갖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李能和의 『朝鮮道敎史』에는 “仙家라고 하는 것은 『海東傳道錄』에 義湘, 道誥이 모두 仙家의 부류에 속하므로, 義湘과 道誥은 世上에서 異儔이라 한다. 義湘이 지은 『靑丘秘訣』과 道誥의 『王龍秘記』는 風水說로서 世上에 崇言된다.”⁷⁾ 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수광의 『芝峰類說』과 李圭景의 『五州衍文長箋散稿』 그리고 『鄭鑑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義湘의 이러한 思想的 側面은 浮石寺의 立地와 配置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華嚴寺의 中堅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丈六殿의 重建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白頭大幹이 老姑壇을 지나서 끝나는 곳이 現在의 覺皇殿 뒷 봉우리인 院沙峰이며 현재 覺皇殿의 位置는 院沙峰의 혈에 해당되는 곳이다. 寺傳에 의하면 이 곳은 우리나라에서 ‘氣’가 가장 센 곳이라고 하며, 佛敎 空間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氣’를 진압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義湘은 이러한 이유로 거대한 丈六殿을 建立하여 氣를 누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義湘이외에도 歷代 華嚴寺의 重創主로서 활동한 慈藏·元曉·義天·道誥 등은 모두 佛敎 외적 思想으로서 風水地理의 大家들이다. 특히 道誥은 사상 최대의 華嚴寺 성관을 구현한 華嚴寺 승려로서 新羅末 이후 華嚴寺 伽藍의 重修 및 경영은 거의 모두가 道誥의 遺志를 받들어 이루어진 흔적이 역연하다.⁸⁾

전술한 바와 같이 華嚴寺 경우 風水思想은 배치와 입지에 모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華嚴寺의 위치는 白頭大幹의 끝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穴의 위치에 해당하여 풍수지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華嚴寺는 백두산을 太宗山으로 老姑壇을 祖山으로 그리고 섬진강 너머의 五鳳山은 朝山으로 한 곳에 老姑壇, 宗石臺, 遮一峰, 院沙峰으로 이어지

7) 李能和, 朝鮮道敎史, 李鍾殷 譯註, 普成文化社, 1986, p.356

8) 李東榮, 華嚴寺 伽藍 建築에 關한 研究 東亞學園論文 24輯, 1995. p.216

는 白虎와 노고단,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靑龍에 의해 커다랗게 감싸여 있다. 또한 작은 형국으로는 백두대간의 마지막 봉우리 원사봉에서 뻗어나온 줄기에 의해 감싸여 있으며, 丈六殿의 위치는 그 혈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런 까닭에 장육전의 향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규모의 거대함은 불사 공간을 이루기 위한 裨補의 성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華嚴寺가 위치한 구례는 山大·水大·野大의 三大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큰 산 밑에 큰물이나 큰돌이 있기는 어려운데 이곳은 천혜의 땅이다. 「玉龍子遊山錄」에 의하면 道誥이 산세를 일견하더니 “성곽이 완벽하여 完福之地 되었구나”라고 단정했다는 대목이 있다.⁹⁾智異山은 최고봉인 天王峰으로 보지 않고 남쪽에 있는 老姑壇을 主峰으로 보고 있다. 帝王之地, 곧 華嚴寺가 山남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智異山 華嚴寺는 백두대간 남단 토산의 강인한 혈맥인 老姑壇 계곡에 위치한 蓮花浮水形의 화엄종찰로 멀리서 보아도 노고단 아래 흰하게 펼쳐진 혈장이 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명당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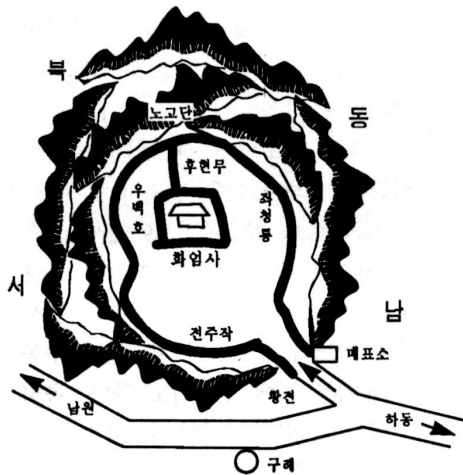


그림 2. 蓮花浮水形의 華嚴寺 형국

華嚴寺는 2차선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 길 오른쪽에 넓은 계곡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일주문에서 1.5km를 들어서면 중간에 시의 광장 조형물이 보이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다. 정상에는 노고단 높은 봉우리를 주축으로 힘차게 내려뻗은 좌우룡이 대단한 자태를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노고단 지맥이 현무가 되어 밀고 내려오다가 그치는 혈장이 넓게 펼쳐져 분지를 이루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토산의 강인한 혈맥은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고 계곡물이 地氣를 지키면서 남서로 흐르니 그 형국이 마치 곱고 둥글게 활짝 핀 연꽃이 물에 떠 있는 듯하여 蓮花浮水形의 지형이다. 宀形은 두 다리를 힘차게 내리뻗은 듯한 鉗穴인데 이것도 위낙 길게 늘어 있으니 長鉗이며 穴證은 두 龍虎가 위호하니 용호혈증을 이룬다.



그림 3. 華嚴寺 전경도(氣를 막아준다는 보제루, 운고각, 범종각이 보인다.)

華嚴寺 大雄殿의 입수맥은 丑龍 으로 들어오고 透地는 辛丑이 된다. 파구는 未破口가 되니 生에 甲·卯·帶에 癸·丑·官에 壬·子·旺에 乾·亥가 된다. 이때 포태법에 따른 좌향을 보면 甲·卯는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任·子·乾·亥는 우측으로 기울어진다. 그런데 남은 좌향은 癸·丑이다. 이때 癸坐丁向은 오행상 水가 되는데 水는 투지룡이 土克水하여 상극하여 坐

9) 최창조. 韓國의 自生風水. 민음사. 1997. p.482

10) 임학섭. 전계서. p.265

가 불가하다. 華嚴寺 大雄殿의 좌향은 丑坐未向이 됨으로 포태법과 정음정양법 법술에 맞고 투지룡이 토가 되니 축좌가 토로 비견되어 화합하며 그 向은 남서 사이인데 남향에 더 가까운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¹¹⁾

또한 백두대간의 마지막 봉우리 원사봉은 覺皇殿의 배경을 이루는 뒷산인데 그 형상이 비상하는 학의 모양을 이루고 있고 覺皇殿 앞에 펼쳐진 산은 마치 알처럼 생긴 산봉우리들이 즐비한 형국이라 하여 풍수학상 飛鶴抱卵形의 명당이라 한다.¹²⁾ 따라서 비학포란형의 역동하는 거대한 기운을 효대의 四獅子塔과 동서양탑으로 이루어지는 3기의 진신사리탑으로 진압하고 이에 더하여 覺皇殿과 같은 대규모 건물로 진압하여 비보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이 韓國 전통 사찰에서 진신사리탑이 3기가 함께 한도량에 모셔지는 예는 없는 것으로서 이는 전술한 바와같이 華嚴寺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기를 진압하려는 비보사상의 의도인 것이다.



그림 4. 동서양탑과 당간지주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발굴된 사례에 의하면 華嚴寺는 풍수지리설로 볼 때 가람 전체가 배(반야용선)의 형국인데 배를 타고 중생계를 편안히 건너가려면 항상 출렁이며 역동하는 華嚴寺의 거대한 기를 누르기 위해 2개의 사리탑을 동쪽(東塔)과 서쪽(西塔)에 세워 진압한 다음 당

간지주를 세워 그곳에 뜻을 달아 순탄히 저 허업범계 연화장 세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현강왕대 도선국사의 풍수적 의도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華嚴寺 거주 승려들의 주장에 의하면 보제루 우각진입의 참뜻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되오던 시각적인 고려로서가 아니고 華嚴寺의 중정에 모여진 거대한 氣가 보제루 누밀로 흘러 나가는 것을 보제루가 병마개와 같은 역할을 하여 틀어막기 위해 風水思想에 입각하여 누하 진입이 아닌 우각 진입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에 보제루에 오르는 계단 마당 동쪽과 서쪽의 훌륭한 경관을 가로막는 손실을 감수하며 세워진 범종루와 운고루의 의미도 실상은 중정에 모여진 氣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더욱 완벽하게 틀어막은 風水思想에 따른 비보의 역할로서 위치한다는 것이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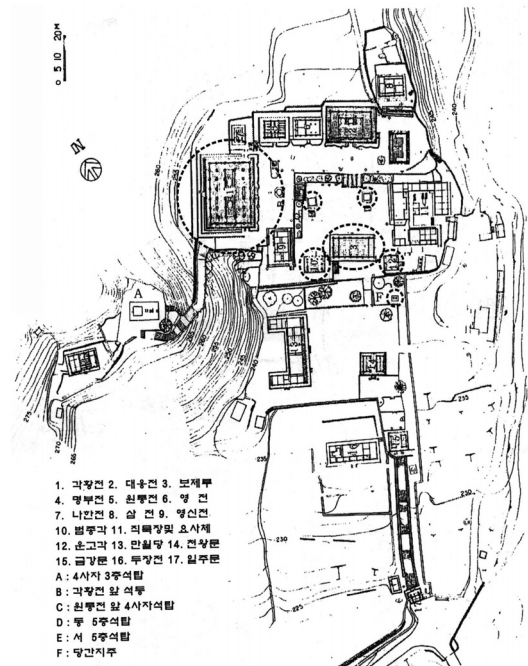


그림 5. 華嚴寺 伽藍 內 風水關聯 分析圖

11) 임학섭, 전게서, p.268
12) 최창조, 전게서, p.485

13) 眞肇, 智異山 大 華嚴寺. 華嚴寺, 1996. p.25

5. 結 論

華嚴寺가 위치한 求禮는 山大·水大·野大의 三大라는 地理的 特性을 갖고 있다. 智異山 큰 산밑에 蟾津江의 큰물, 그리고 求禮의 큰 들이 있기는 어려운데 이곳은 天惠의 땅이다.

華嚴寺의 위치는 白頭大幹의 끝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穴의 위치에 해당하여 風水地理상으 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華嚴寺는 큰 형국으로는 白頭山을 太宗山으로 老姑壇을 祖山으로 그리고 蟾津江 너머의 五鳳山을 朝山으로 한 곳에 老姑壇, 院沙峰으로 이어지는 白虎와 老姑壇, 형제봉으로 이어지는 靑龍에 의해 커다랗게 감싸여 있다. 또한 작은 형국으로는 백두대간의 마지막 봉우리 원사봉에서 뻗어나온 줄기에 의해 감싸여 있으며, 丈六殿의 위치는 그 혈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 規模의 거대함은 우리나라에서 氣가 가장센 穴을 진압하고 불사 공간을 이루기 위한 義湘의 裨補의 조형의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智異山은 최고봉인 天王峰을 主峰으로 보지 않고 남쪽에 있는 老姑壇을 主峰으로 보고 있다. 帝王之地, 곳 華嚴寺가 山남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智異山 華嚴寺는 백두대간 남단 토산의 강인한 혈맥인 老姑壇 계곡에 위치한 蓮花浮水形의 華嚴宗刹로 老姑壇 아래 펼쳐진 혈장이 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명당이다.

정상에는 老姑壇 높은 봉우리를 주축으로 힘차게 내려뻗은 좌우룡이 대단한 자태를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老姑壇 지맥이 현무가 되어 밀고 내려오다가 그치는 혈장이 넓게 펼쳐져 분지를 이루는 곳에 華嚴寺가 자리를 잡았는데 토산의 강인한 혈맥은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고 계곡물이 地氣를 지키면서 남서로 흐르니 그 형국이 마치 곱고 둥글게 활짝 핀 연꽃이 물에 떠 있는 듯하여 蓮花浮水形의 지형이다.

華嚴寺의 伽藍은 韓國風水地理學의 좌향법 논리에 있어 대표적인 이론 및 분석체계인 포태법

이나 정음정양법등의 범술에 모두 잘 부합되도록 배치되어 地氣와 水氣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잘 조화됨으로서 風水의 논리에 정확히 부응한 성공적인 가람구성의 예로 볼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山水가 아름답고 地氣가 왕성하여 안정과 정서를 찾을 수 있는 재충전의 터전으로 名勝地라는 이름이 붙는다. 따라서 그러한 名勝地에 名刹로서 창건된 華嚴寺 伽藍의 빼어난 風水學의인 원리를 살펴 볼 때 自然과 사람이 만들어낸 明堂으로서의 바탕위에 이루어진 위대한 造營정신을 실감하게 한다.

참 고 문 헌

- 1) 耘虛龍夏. 佛教辭典. 法寶院許. 1980.
- 2) 金煥泰. 三國時代 佛教信仰研究, 佛光出版部. 1990.
- 3) 李能和, 朝鮮道教史, 李鍾殷譯註, 普成文化社, 1986.
- 4) 李東榮, 華嚴寺 伽藍 建築에 關한 研究, 東亞學園 論文 24輯, 1995.
- 5) 李重煥. 擇里志. 乙酉文化史. 1972.
- 6) 이희덕, 풍수지리, 박영문고, 1976.
- 7) 임학섭, 寺刹風水, 밀알사, 1995.
- 8) 진경돈, 부석사의 입지선정배경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논, 1988.
- 9) 眞肇, 智異山 大 華嚴寺, 華嚴寺, 1996.
- 10) 최창조, 한국의 自生風水, 민음사, 1997
- 11) 韓國의 伽藍. 民族社. 1997. p.35